



cm의 小鍾이며 口邊 돌레에 「己酉九月日 造大納水國寺 青信 女崔氏□□□、亦公 全氏及法界生王□去 徒泉之德」이라는 刻銘이 있어서 在銘高麗梵鍾에 또 하나의 新例를 加한 셈이 된

다.

이 己酉라 함은 아마도 西紀一三六九年 即 高麗恭愍王十八年에 該當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本誌二四號에 紹介해둔 至大四年銘(一三一) 在巴里高麗鍾의 手法樣式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선 鍾身浮彫의 飛天像이 여기에서는 僧像으로 바뀌었고 各部樣式과 浮彫手法도 한층 稚氣를 띄우고 있어서 이것이 高麗梵鍾의 末期에 屬하는 作品으로서 말하자면 어딘가 모르게 시골티를 풍기는 솜씨라고나 할까

上帶 下帶 그리고 四個處의 九乳廓과 그사이 사이 四個의 僧像浮彫、四個의 蓮花撞座와 內部로 貫通된 六珠甬筒、四爪龍鈕의 樣式等 거의 나 무랄것 없는 韓國鍾樣式을 잘 갖추고 있으나 그 細部를 觀察해 보면 帶文의 寶相唐草文은 四瓣花로 된것과 五瓣花로 된것이 섞여 있으며 撞座의 六瓣蓮花文도 매우 稚拙해서 可謂 微笑를 자아낼만하다.

四個處의 僧像은 各其 조금씩 다른 姿勢와 衣褶을 表現하고 있으나 모두 合掌하고 있으며 鍾의 上緣에 장식된 立花形은 아마도 如意頭文에서 退化된 것으로 보여지는 간략한 人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細部의 稚氣있는 솜씨에 比하면 鍾身의 形態 및 曲線은 매우 짜여져 있으며 특히 배흘림의 曲線은 典型的인 高麗鍾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고마울다. 素地는 磨損된 部分에서 黃銅色을 보이고 鍾身全體의 綠銹도 알맞게 고울다. 甬筒의 寶珠하나, 돌으라진 鍾乳하나, 그

리고 上緣의 立花形이 몇군데 이가 빠져있을뿐 거의 完形에 가까울다.

### 澈鑿國師浮屠의 木造樣式

申 榮 勳

全南和順郡梨陽面甄里 雙降寺境內에 있는 澈鑿國師浮屠는 咸通九年(八五八)에 澈鑿國師가 示寂한 後 建立되었다고 하는 新羅統一期의 作品이다. 이 浮屠에 對하여는 이미 先輩들의 論攷가 있어 學界에 널리 알려졌고 國寶로 再指定된 秀品이므로 새삼스럽게 言及할 性質의 것은 아니

나 여기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木造樣式의 規格만을 實測值대로 紹介하여 資料에 供코자 한다. 特別히 여기서 學論코자 하는 部分은 身石과 蓋石에 限한다.

#### 1, 屋蓋

가, 莫斯瓦……夫

莫斯는 蓮花八

瓣圓形物·直徑

八分·周圍太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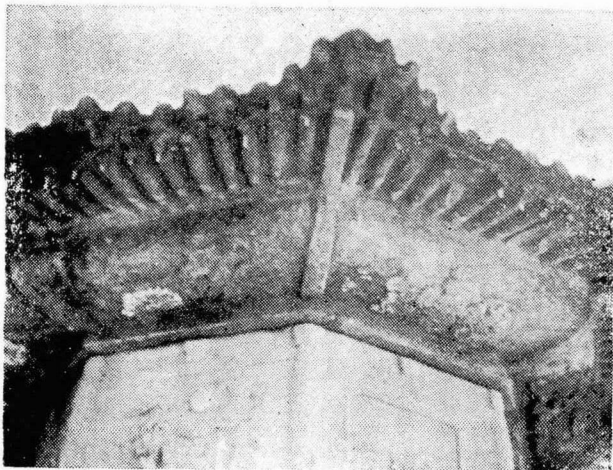
條·女莫斯는 上

下太條線上線은

直線이고 下線

은 弧形으로 素

文인데 高는 四



分 夫莫斯의 心心間의 間隔이 一·四寸이므로 女莫斯의 幅은 約一·二寸으로 본다.

나, 椽舎……高는 一·五分 平交臺와 同造 되었다.

다, 平交臺……浮椽베이 平交臺는 차고베이와 同造 되었다. 이러한 例는 松廣寺國師殿의 그것과 같다. 高는 七分

라, 浮椽……方椽 長二·二寸 內幅七分 先端幅三·八分 高五分의 梯形角木인데 近來의 浮椽이 高가 높고 幅이 좁은 것과 反對 되는 것으로 高麗末期建築物에서 一部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手法이다.

浮椽間隔은 一·四寸

마, 椽木……長三·六五寸·末口長徑六分 短徑五·五分 直徑七分으로 椽木은 배흘림을 두듯이 하면서 끝을 훔쳤는데 末口가 圓形이 아니고 上下가 길고 폭이 좁은 橢圓形이다. 이러한 例는 觀音寺圓通殿 등에서 遺形을 볼 수 있다. 浮椽과 椽木의 值數는 露出部分만의 것이니 架構時 숨겨진 部分은 別途로 想定하여야 한다.

바, 蓋板……浮椽과 椽木의 蓋板을 椽蓋板으로 推定한다면 浮椽蓋板은 長二·五寸이고 幅은 心心一·四寸이며 椽木蓋板의 長은 三·五五寸이고 幅은 浮椽蓋板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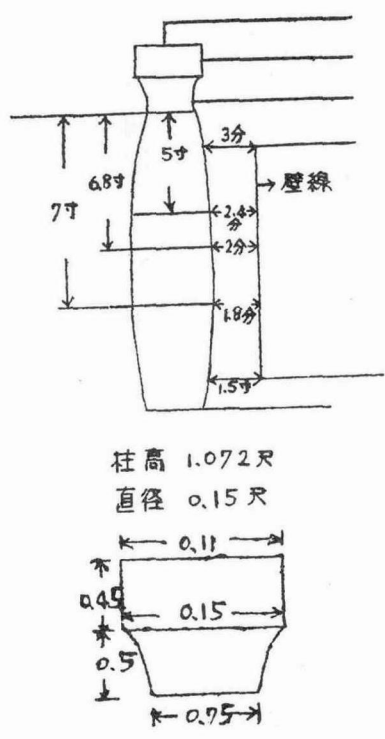
사, 浮椽및 椽木의 架構……浮椽과 椽木은 十三本の 同數이며 隅架의 手法은 扇子椽결이 아니고 『마지』(?) 式의 手法으로 優先 假定된다. 中央三本만은 平行하게 걸고 그 左右 五本은 차츰 間隔을 벌리며 걸어 퍼져나간 처마의 空間을 處理하고 있다. 道里目的의 幅은 一·四二尺이고 처마의 長이는 一·九尺이니 差數 四·八寸을 間隔법림에 案配한 셈이 된다. 各浮椽의 間隔은 十四間인데 그 值數는 다음 表와 같다(①과 ⑭는 一位, 十三位浮椽과 春舌과의 間隔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均値는 一·三五寸이다. 椽木은 柱心道里에 架

別表 1

①	1.35
②	1.3
③	1.3
④	1.3
⑤	1.35
⑥	1.35
⑦	1.4
⑧	1.3
⑨	1.3
⑩	1.35
⑪	1.35
⑫	1.35
⑬	1.3
⑭	1.5

單位는 寸 西全擇  
(實測은 向角의 完全部分을 하였습니다)

別表 2



2, 身石  
가, 柱……배흘림이 강한 圓柱. 그 배흘림의 數値는 別表와 같다. (基準線은 벽선) 이 배흘림이 顯著한 배흘림이 있는 기둥은 麗末鮮初의 遺構



1

構 되었다. 여기서 注意할 點은 椽木의 方向과 기와골의 方向이 서로 다르다는 點이다. 기와골수는 十一列로 數도 다르나 瓦列은 隅棟間에 長短列이 相互 平行한데 椽木列은 前記와 如히 부채살처럼 퍼지고 있다. 이러한 樣式은 近世 木造建築物에서 發見할 수 없는 興味 있는 遺形이다.

아, 隅棟……春舌마루인데 樑城(?) 하였다고 봄이 옳을런지 積재部分은 壁面으로 略化되어 있다. 그 斷面은 圖一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마루 上面中央에는 숫기와 汗줄을 얹고 그 끝에 莫斯瓦를 끼었다. 이러한 手法은 最近까지도 愛用되는 樣式이다. 但只 아래부분에 突起를 擬態한 것은 異狀한 것으로 차고베이 위에 빗물을 더는 裝置를 別途로 添加하였는지 다시 考究할

에서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柱頭……各柱上과 各柱間 平昌枋과 引枋 사이에 位置하고 있다.

굽이 曲面으로 되고 浮石寺無量壽殿의 遺例와 같은 굽받침이 없는

點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굽받침이 없는 例는 鳳停寺極樂殿에 遺

形을 남기고 있다①

다, 檐遮……長二·八二寸, 幅三·五分 端은 直線이고 下端은 丸線이

고 上下線은 直線으로 마치 鮮初 多包棋包의 檐遮를 連想케 한다.

端面이 垂直인 點은 鳳停寺極樂殿의 것과 같다.

람, 架檣……八角隅에 立柱하고 柱頭를 놓고 幅六·五分之 平昌枋을

차돌렸고 그 아래로 幅六·三分의 空間을 두고 그 아래에 六分之 引

枋下柱左右에 벽선을 세우고 기둥 아랫몸에 七分높이의 下枋을 차

돌렸다. 그 間에 分閣門(素文)을 내었는데 獅子形(?) 자물쇠를 채

었다.

以上 概略의 인 值數를 紹介하였다. 極히 斷片의 이어서 木造遺構와의

比較는 어러우나 全貌의 對照는 後人에게 미루고 여기서 期待하고 싶은

것은 이 遺構를 擴大하면 各部材間에 어떠한 比率를 갖고 있겠느냐 하

는 점이다. 가령 十倍를 擴大하여 現存 어느 遺構의 크기만큼 되었을 境

遇 과연 그 비율은 現存遺構의 比率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의 源流를 抽

出할 수 있겠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하고 싶은 것이다.

羅代의 遺構 特別 이와같은 九世紀의 樣式이 十三世紀頃까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는나의 問題를 檢討할 價値가 있다고 본다. 義城塔里石塔,

鐵原楓川地方의 石造物②, 其他 서울大博物館所藏의 塔蓋石 등을 이러한

意味에서 再檢討되었으면 한다.

註

① 杉山信三「高麗末朝鮮初の木造建築に關する研究」一八五頁

② 同書插圖二參照

### 善山海平洞 石造如來坐像

秦 弘 燮

慶尙北道 善山郡 海平面 海平洞 보전部落에 近來에 新築한 寶泉寺

①라는 小庵이 있고 그 後崗에 臺座와 光背가 具存한 石佛坐像 一軀가 있

다. 古蹟調査資料에 海平洞에 石佛坐像 一軀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어

있는데② 報古된 石像의 樣式과 彫刻은 그 記錄으로 보아 現存한 石佛

과 같으나 다만 높이가 四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 石佛은 臺座以下가 埋

沒되었던 것을 數年前에 發掘하여 現在와 같은 狀態로 露出시켰던 까닭

으로 前揭 報告文에는 發掘前의 높이만 記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善山地方은 舊一善郡으로 大正初년부터 古墳, 郡治址, 佛敎遺蹟 等の

調査가 本格的으로 行해져서 報告書가 提出되었으나 여기 紹介하려는 石

佛에 關해서는 言及된 바 없다.

本石像은 前述한 바와 같이 近來에 發掘된 것임으로 埋沒되었던 臺座以

下는 比較的 保存狀態가 良好하나 佛體나 光背에는 若干의 損傷과 銃彈

痕이 있고 더욱이 顔面 特別 鼻目이 眊(세)멘으로 後補된 것은 本石佛의 致命

傷이 아닐 수 없다.

또 若干 赤褐色을 띤

花崗石 石質이 弱한

탓으로 全面的인 風

化作用을 이르고

있으니 例컨대 光背

에 있는 化佛香爐를

爲始한 文樣은 不分

明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全體의 均衡

